

곡성 기차당뚝방마켓, 특별한 웨딩 이벤트

마켓 참여 셀러·뚝방마켓협동조합 조합원·지역출신 모델 합작 진행

임원자 이사장 “플리마켓 뿐 아니라 셀프웨딩·야외스냅장소 활용 계획”

5월 1일 전남 곡성군 기차당뚝방마켓에서 특별한 웨딩 이벤트가 펼쳐진다.

이번 이벤트는 마켓 참여 셀러와 뚝방마켓협동조합 조합원, 지역출신 모델의 합작으로 진행된다. 먼저 셀러들은 웨딩이벤트에 어울리는 포토존을 직접 꾸민다. 이들은 올해 조합에서 진행한 셀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에서 파티플래너 자격증 과정을 수료한 바 있다. 셀러들은 뚝방마켓의 노랑 그늘막,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 호밀, 잔잔하게 흐르는 천변에 맞춰 자연스러우면서 감성적인 스톱웨딩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생각이다.

전재선 셀러와 김은미 셀러는 셀프웨딩 모델로 참여한다. 전재선 씨는 재선목공예, 김은미 씨는 솔내음 농

원이라는 이름으로 수년째 뚝방마켓에 참여하며 ‘뚝방의 지박령’으로 불릴만큼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복의상은 뚝방마켓 셀러로 인연을 맺었던 배틀한복 광주점에서 협찬한다.

지역 출신 시니어 모델 한성택 씨는 재능 기부에 나선다. 한성택 모델은 곡성 압록에서 태어나 곡성 석곡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했다.

이후 엘리트모델 에이전시 소속 시니어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번 뚝방마켓 이벤트를 참여해 위해 시간을 내고자 소속 회사로부터 양해를 구할만큼 적극적이다.

한성택 모델은 이번 이벤트에서 리마인드 웨딩을 콘셉트로 런웨이를 걸을 예정이다. 함께할 여성 시니어 모델로는 뚝방마켓협동조합 감마레이사(송현영씨공방)가 참여한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즐겁고 활기차게 자신의 삶을 사는 액티브 시니어의 면모를 보여줄 계획이다.

이외에도 웨딩사진 콘테스트, 화

관 만들기, 즉석 웨딩 메이크업, 컵케이크 만들기, 케이터링 도시락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들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뚝방마켓 홈페이지(<https://gokseongtour.modoo.a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뚝방마켓협동조합 임원자 이사장은 “뚝방마켓이 다양하게 변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뚝방마켓이 플리마켓뿐 아니라 웨딩셀프, 스톱웨딩, 야외스냅장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구례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한다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구례군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리는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홍보에 나선다.

2021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는 올해 열리는 첫 귀농귀촌 박람회로 연합뉴스와 농협이 주최하며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지자체별 맞춤형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장에서는 귀농귀촌 홍보와 농특산물 전시판매 부스를 운영한다. 구례군은 전체의 자연환경과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착시설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구례정착 보급자리 등을 도시민들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상담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행사장에서는 공식홈페이지(www.yfarmexpo.co.kr)와 연합뉴스 유튜브를 통해 특별강연 및 토크 콘서트 등을 동시 중계하여 구례군의 귀농귀촌 정책 및 농·특산물 관광지 등을 소개한다.

김순호 군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보를 제공하여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침체된 농촌사회의 돌고루로 귀농귀촌인 유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포스트 코로나 대응 농촌체험관광 활로 모색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농식품부·전라남도 등 공모사업 두루 선정



도 주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마을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민 유치 홍보, 노후 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세지화담, 예코왕곡마을은 전라남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비식품인 농어촌체험관광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선보이는 ‘남도장터’에 입점한다.

코로나시대 자연관광, 안전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에게 대응하고 체험객 감소로 어려운 농촌마을 공동체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예코왕곡, 왕곡덕실마을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관광경영체 비대면 체험꾸러미 지원 사업’에 예코왕곡, 이슬촌, 금안한글마을이 나주시 ‘힐링과 힘이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대상 마을로 각각 지정됐다.

나주시는 각 마을별 특색이 담긴 ‘비대면 체험키트’를 개발, 체험신청 대상자들에게 배부하고 줌(zoom), 유튜브(youtube) 등 화상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체험·관광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세 감소에 따른 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비해 7개 마을을 소방합동점검, 체험안전·화재보험 가입, 방역소독 등을 사전 완료했다.

기동취재본부

나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체험 콘텐츠 육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올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농촌을 체험·휴양 공간으로 조성하는 마을이다.

마을 특색을 반영한 관광·체험·휴양 콘텐츠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농가 소득향상과 농촌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나주시에서는 왕곡 덕실, 예코왕곡, 문평 명하쪽빛, 산포 흥련, 세지 화담, 노안 이슬촌, 노안 금안한글 등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 마을은 올해 중앙부처, 전라남

도, 나주시 주관의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관광·체험컨텐츠를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명하쪽빛, 예코왕곡마을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인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기존 대규모 여행단 대상이 아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가족단위 소규모 여행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선정 마을당 최대 2천만 원의 국비가 전액 지원되며 소규모 농촌관광·체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컨설팅, 재료비, 콘텐츠 개발비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산포흥련, 왕곡덕실마을은 전라남

담양군,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담양군이 29일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담양군의 올해 공시대상 주택은 15,042호이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상승(상승률 12.5%)으로 개별주택가격 또한 같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

세대 1주택일 경우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www.damya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전남부동산정보시스템(kras.jeonnam.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및 우편·FAX로 접수하면 된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특별방역관리 기간 하니움 출입 통제

화순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5월 2일까지를 특별방역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하니움 잔디광장에서 봄날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이 늘고 농구장·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출입 통제를 위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회랑과 연못 주변 잔디광장,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등에는 출입통제선을 설치했다.

특별방역 기간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을 강력히 관리하고 있다.

화순=박순철기자

장성군, 군 급식에 로컬푸드 공급량 ‘확’ 늘린다

장성군이 군 급식에 지역 농산물(로컬푸드, local food) 공급 비중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28일 삼서면 ‘군급식로컬푸드지원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유두석 장성군수, 삼서농협 관계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롭게 문을 연 ‘군급식로컬푸드지원센터’는 총면적 1159㎡에 식재료 전처리시설(838㎡)과 저온저장고(321㎡)로 구성되어 있다. 총 사업비는 군비 포함 13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주로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식자재를 전처리하거나 간양파, 절임배추 등의 가공품을 생산한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